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모두가 기다리던 호버크라프트, 오이타 도착

호버크라프트 제1호선 도착! 오이타현

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선) 제1호선 'Baien(바이엔)'이 오이타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 납품 기념식을 가진 후 10일에 일반 공개된 바이엔은 총 80석의 좌석과 짐, 자전거,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버크라프트는 총 3척 납품 예정이며 이후 오이타 공항(구니사키시)과 니시오이타 지구(오이타시)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버크라프트 취항으로 인해 오이타 공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니시오이타 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오이타현, 우주 식품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 개시
- 벳푸 타워, 일본 야경 유산 선정…현 내 일곱 번째
- NPO 벳푸 프로젝트, 규슈 관광 마을 조성 대상 수상
- 오이타-몽골 전세기 운행…시미즈 전 대사 기획
- 벳푸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전용 대피소 개설
- '하늘 나는 자동차', 현 중앙 비행장(분고오노)서 검증
- 현 내 기업, 중도 채용 힘써…퇴직자 복직 제도 마련
- 오이타시, 청년 창업가 양성 시설 사전 오픈
- 벳푸시 우크라이나 난민 벼 추수 체험…히지정 농가 기획
- '온천현 오이타' 상표 등록 10년…전국적으로 정착
- 오이타현 내 기준 지가 28년 만에 상승…사회경제 재활성화

우스키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존합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우스키시

지난 2021년 11월에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된 우스키시는 1600년대에 시작된 양조업의 전통을 지키며 된장, 간장, 양조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질소검약 정신과 지혜로 향토요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스키시민이 정성껏 만든 식문화와 더불어 물의 순환을 소중히 여기며 유기 농업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시가 주체가 되어 풀과 나무를 사용한 완숙 퇴비를 생산하고 생명력 있는 토양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하는 우스키시의 이러한 활동은 식문화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양조 및 발효 산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질소검약 문화를 중심으로 우스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 협력 및 경제 성장 부문에서 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창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스키 다케요이
일시 2023년 11월 4~5일
장소 니오자(二王座) 근교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전시장: 야마다 별장(山田別荘)

전시장: 기요시마 아파트(清島アパート)

작가를 직접 만나고, 교류하고, 활동을 지원하다

2023 아트 페어 벳푸 개최 벳푸시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술은 상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팸플릿 발췌)"

벳푸 혼욕온천세계 실행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2023 아트 페어 벳푸'를 개최했다. 미술, 영상, 음악, 퍼포먼스,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는 일본 국내 및 해외 작가를 초청하여 전시장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이 행사는 2025년 본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행사로서 진행됐다. 아트 페어 벳푸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가 원칙적으로 전시장에 상주한다'는 점으로, 방문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한 작가와 직접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과 열정을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 행사 종료 후 호평을 받았다. 전시는 '벳푸 국제 관광항', '야마다 별장', '기요시마 아파트' 총 세 곳에서 열렸는데, 사실 각각 과거 페리가 들어오던 항구의 건물, 약 90여 년 전에 지어진 료칸(일본 전통 숙박 시설), 레지던시(작가에게 작업 공간 등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프로그램을 위한 작업 공간이므로 전시에 특화된 장소가 아니다. 그러나 각 장소만이 가진 매력에 다채로운 작품이 어우러져 오히려 독특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고, 색다른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다른 아트 페어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작가: 엔도 가오리(遠藤 薫)

작가: 히가시 도모에(東 智恵)

방문객은 작품 곁을 떠나지 않는 작가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봄으로써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작가는 작품과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플랜을 판매하고 그 활동과 미래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최 측은 국내외의 기술성·예술성을 지닌 작가를 발굴할 수 있다. 벳푸시가 문화적 사교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행사는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 꼭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입장 유료, 셔틀버스 운행)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特別インタビュー_ソン・ソグ 写真作家

특별 인터뷰_송석우 사진작가

세 곳의 전시장 중 야마다 별장에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사진작가 송석우 씨가 참여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가 선보인 17점의 작품은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위로를 건네는 듯한데, 작품과 작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송석우입니다. 주로 사회적인 관계 속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화된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화되어 가는 특정 세대의 몸짓 언어와 퍼포먼스를 시각화하는 연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진 작업을 하게 되신 계기를 알려 주세요.

유년 시절 미술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컴팩트 카메라를 이용해 스케치 촬영을 도와주신 걸 계기로 카메라와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진을 찍다 보니 흥미가 생겨 자연스레 전공을 하며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대학교에 복학한 후에는 제 작업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동료들과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며 작업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음을 깨닫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주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원리'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원리'란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등을 뜻하며, 한국 청년들의 초상 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그러한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신 계기가 있나요?

의무 경찰로 병역 의무를 수행했을 때 본적과 다른 지역으로 발령되며 지역 차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한 언어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난무하는 차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그토록 허망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작업 시작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에 소장된 흑백 작업 'IDENTITY : 정체성의 사유(2017)' 시리즈의 일부 작업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첫 작업임에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삶과 작업에 큰 계기 및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작가 자신의 사유를 통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을 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 감정 이입 및 배치한 것으로, 처음 직접 준비하고 기획하여 연출한 초창기의 개인 작업입니다.

- 작품에서 천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정체성'은 내면 심리를 통해 내적 자아를 발현시키는 것이지만, 저는 작업에서 '외적 자아'를 더 보여 주려고 합니다. '외적 자아'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오브제나 인물의 제스처, 몸짓 언어 등을 뜻하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며, 그러한 형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천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했습니다. 천을 선택한 이유는 가변적인 물성이 있어 변형이 비교적 쉬우므로 저의 작업을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시각적 효과를 더욱 부각하고자 여러 장을 사용해 촬영 후 조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흑백에서 컬러 작업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창기 작업인 흑백 사진은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뿐이라 그 인물에 굉장히 집중되고, 흑과 백이라는 두 가지 색만 사용하므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컬러 사진은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작업의 배경과 인물의 유니폼 등으로 시선을 흩어지게 하여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다양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기에 컬러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 최근에 하고 계신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연출 사진 작업의 연장선으로 퍼포먼스나 몸짓 언어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과,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 이야기를 비정형적인 언어를 통해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대상'이란 20·30 그 이상의 세대와 사회적 관념을 지니거나 관련이 있는 세대 등을 일컬으며, 이들을 조금 더 조망해 조형적인 신체 언어를 구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작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기억을 드러나게 하여, 시각 예술 매체로서의 사진의 기록성을 이용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려 주세요.

지속적으로 삶과 작업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예정된 전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 작업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제 작업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과, 저의 작업을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매체적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제 작업은 제 이름과도 같다고 생각하므로 작업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하고 싶은 것이 소소한 목표입니다.

-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사회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회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개인에서 사회적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저의 작업을 관찰하며 희망을 얻거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저의 작업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며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 오이타·벳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꼈으나 실은 올해 들어 생애 처음 일본에 왔고,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일본 방문이지만 오이타·벳푸는 처음입니다. 이 지역의 이야기는 익히 들었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지만, 직접 와 보니 마을 분위기에서 모던함이 느껴지고 조금 예스러운 가옥이 많이 보이는 등 흔히 접할 수 없는 생경한 경관이어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 이번 아트 페어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와 작품에 대해 한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많은 분께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트 페어는 작품 판매 목적이 주가 되는 것이고 저 역시 작품 판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아트 페어의 기획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동의 후 참여하게 됐습니다.

- 작가가 상주해야 하는 아트 페어는 처음이시죠?

이번처럼 작가가 상주하는 성격의 행사가 많은 건 아니기에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상주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더욱 빠르게 접하고 흡수할 수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작품을 유심히 보시고 주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느낌이 들어서 흥미로웠습니다.

- 더 나은 아트 페어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아트 페어 참여에 앞서 사무국에서 통역과 항공, 숙박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작가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트 페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외에 특별히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송석우 Seok-woo Song
사진작가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과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과 석사 졸업

개인전
2023 제4의 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대구

주요 그룹전
2023 이름 없는 소우주,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2023 6th Helsinki Photo Festival 〈Courage〉,
The National Museum of Finland, Finland
2023 KYOTOGRAPHIE 〈KG + SELECT〉,
Horikawa Oike Gallery, Japan

수상 및 선정
2023 Winner, 6th Helsinki Photo Festival
Open Call, HPF, 핀란드
2023 제1회 천만아트포영 최종 수상,
월간 퍼블릭 아트, 한국
2023 교토그라피 KYOTOGRAPHIE 〈KG + SELECT〉
Competition Award Selected Artist, 일본

소장
2023 Photographic Center Northwest
2022 DECK Contemporary Art Photography Centre
2021 크라스노야르스크 미술관
2020 부산시립미술관
2019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강의
2022~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출강

…and so forth.

인터뷰일: 2023년 9월 25일
기사 작성: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0월(제86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31화

안지와 홍이 2화 -완-

3년 전, 국제교류원 합격 전화를 받은날 우연히 함께 있었던 덕에

내가 일본에 가게된 걸 가장먼저 알게된 안지와 홍이는 꼭 나를 만나러 오겠다 했고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며 여행이 활발해진 지난 7월, 둘은 정말로 오이타를 찾아왔다

'나를 만나기 위해' 선뜻 해외까지 와 준 둘을 위해 나도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고

그렇게 카보스 리큐르와 메지롱 인형 등 오이타 기념품을 잔뜩 사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내가 어디에 있든 만나러 와 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될수있도록 힘내야겠다!

끝

어느새 10년지기 친구가 된 둘과의 우정을 기념하고자 그린 특별편 끝!